

## 큰 요한복음: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 어떤 하님을 믿는가?

성경말씀: 요6:1-14

오늘 요한복음 20번째 강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시간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적은 것이다. 특별히 모든 성경 기록이 기록된 이후에 신약성경을 마감하면서 그분의 생애를 요약한 것이다. 요20:30-31, 21:25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 극심한 고난, 메시아 기대, 침례자 요한의 등장, 메시아 소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들을 행하심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특히 종교인들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함

니모데모 같은 바리새인 랍비도 그분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와서 진리를 확인하려 함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 1500년 동안 내려온 율법과 전통은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하늘을 향해 눈이 열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통곡의 벽 앞에서 2000년 전 자기 조상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

천주교 정교회 등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곳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안식일 준수이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안식일 준수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 함,

그들은 듣지 않음. 요5장에는 안식일에 베테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는 병자를 고치는 기적

1.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함을 보임(5:17-18).

2. 아들이 하는 일을 알림(24-25).

3. 구약성경은 무엇인가? 나에 대한 증인이다(39).

4. 모세의 책들을 믿는 사람만 나를 믿을 수 있다(46). 우리는 성경의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함

그런데 요6장에는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의 다수가 그분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기록됨

1-14: 오병이어 기적, 15-29, 그분을 붙잡아 왕을 삼으려 함,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함

30-71: 기적과 표적의 의미, 나는 하늘에서 온 빵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므로 그분을 떠남, 제자들이 분리됨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 정말 가능한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사람들이

몰려든 원인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떠난 원인이기도 하다. 그들이 떠난 이유: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가? 생각해 볼 것;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 오병이어 사건 개요

오병이어 기적은 너무나 중요해서 4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마14, 막6, 눅9).

스펠전: 왜 4복음서에 기록?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것이 됨을 보여 주기 위해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을 거둔 결과로 생긴 문제를 푼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함

심지어 제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함(막6:30-31), 미어터지는 문제

그래서 쉬려고 배를 타고 갈릴릴 바다 건너편의 벧새다 언덕으로 감(요6:1; 눅9:10)

벧새다는 요르단 강이 갈릴리 호수로 물을 대는 곳,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요1:44)

그런데 문제가 발생함

그쪽으로 배가 가는 것을 보고 여러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걸어서 거기로 몰려옴(막6:33; 요6:2)

주님의 말씀(막6:34),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 5000명 대중(2만 명)

주님은 그날 온종일 말씀 선포,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 많은 사람들 감화 감동

정말로 그날은 대단한 날이었다.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군중 모두 피곤하였다.

3절: 제자들을 데리고 조금 높은 곳으로 가서 앉으심

문제 발생: 어떻게 이들을 먹일 것인가?(5)

주님은 문제의 해결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6) 제자들의 영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려고 질문을 하심(6)

제자들의 반응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

1-14절 요약

1. 사람들의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육적 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필요
2. 주님의 사람들이라 해도 자기들 힘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
3.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
4.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이 가져온 부족한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 해결책

어떻게 오천 명의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포함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가? 네 가지 방법 제시됨.

1. 이들을 굶겨서 그들의 집으로 보낸다(막6:35-36). “나 몰라라 하는 것”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대답, 본능적인 대답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기진해서 쓰러질 것을 아셨다.

또한 때는 저녁이라 다른 데로 갈 수 없었다(마14:15).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쉽게 보이지만 무성의함

이유: 불신, 자기의 존재 이유를 몰라서,

교회/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의 있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함

2. 주님은 이들을 시험하심(5), 이에 빌립이 즉각 대답함

돈을 모아서 빵을 사자. 계산해 보니 적어도 200 데나리온(7)

데나리온 남자의 하루 일당, 10만원, 2,000만원, 1000원짜리 빵 하나씩

그런데 이것으로도 무리들의 필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마14:21).

돈은 많은 문제를 풀지만 모든 문제를 풀지는 못한다.

이 경우 돈이 있다 해도 어떻게 그 많은 빵을 구하는가?

주님의 요점: 빌립의 믿음 시험

빌립은 계산기에 의존하는 사람, 많은 경우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경우 주님의 일은 계산에 의해서 되지만은 않는다.

서창 예배당 건축,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

특히 빌립은 외적인 증거들을 요청한다(요14:7-8).

삼상 17장의 다윗의 경우를 보라. 골리앗의 키는 2.5-3미터, 자기는 1.5미터

다윗은 계산에 의해서는 도무지 그를 이길 수가 없었다.

인생에서 이런 때가 있다. 이런 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

3. 안드레의 방법(9): 그는 빌립보다 나았다.

방법을 찾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소년을 발견함

안드레의 특징: 누군가를 주님께 데려오는 사람, 요1:40-42, 베드로, 12:20-22, 그리스 사람들,

그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람, 결국 그의 제안을 통해 주님이 일하셨다.

그는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확신을 갖지는 못하였다(9).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

4. 주님의 방법, 완벽한 방법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신 뒤 축복 기도 하시고 빵과 고기 배급(10-11)

그분의 손에서 빵과 고기가 불어남.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봄, 가장 위대한 기적, 그래서 4복음서에 기록됨

아마 처음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이런 기적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조각들을 나누어 주는 기쁨을 소유하였다.

그 소년의 도시락은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만큼이나 값진 것이었다. 300테나리온

### 제자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

보내라. 계산해 보자. 있는데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 요약: 오병이어, 어떻게 이것들로 그들을 먹이는가? 불가능

그런 것도 모르냐? 그것은 상식 수준의 일이다.

그런데 주님의 일에는 사람의 상식이 무식과 무지가 될 수 있다.

우리 혹은 기독교는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말씀으로 6일 동안 온 우주를 창조해?

이제 6000년밖에 안 되었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해?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고?

제자들의 판단 착오: 오병이어만 보았다.

자기들과 함께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였다.

2장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즙 기적

5장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환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파워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짐: 바로 이것이 문제, 우리는 어떤가?

어떤 사람의 말: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위대함에 따라 그대로 행동한다.

부처를 섬기면 부처의 능력, 마리아를 섬기면 마리아

자기를 섬기면 자기의 능력만 믿는다.

폴리앗을 본 뒤 다윗의 말(삼상17:45-47)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는가?

특별히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크기가 드러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창조의 하나님, 밀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 이 기적의 목적

오병이어로 충분히 먹고 조각들을 12바구니에 모으자 사람들의 반응(14)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신18:15), 메시아 표적,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분의 파워를  
그대로 믿어야 한다(요5:24-24).

인본주의자들의 반응: 그럴 리가 없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배가 불렀다. 혹은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온 숨겨놓은 도시락을 먹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불신 반응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15절을 보라, 억지로 그분을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 함

주님의 손에서 빵과 물고기가 불어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함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왕으로 삼자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 이 기적의 의미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를 드리심(6:11; 23)

의미: 배고픈 자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할 일: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대로 하신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재평가해야 한다. 어떤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다.

또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